

# 6경기 55실점... KIA 마운드 대참사



**양현중·윌랜드 등 부진에 팀 평균자책점 9.17**  
**타선 침묵·전략 없는 벤치 '총체적 난국'**  
**10구단 체제 첫 꼴찌 추락... 묘수 찾기 난망**

6연패에 빠진 '호랑이 군단'이 단독 10위로 추락했다. 10개 구단 체제 이후 처음 기록된 10위다.  
 KIA 타이거즈가 2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시즌 3차전에서 2-9패를 기록했다.  
 양현중의 부진 속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줬던 윌랜드가 두 경기 연속 부진했다. 이날 윌랜드는 페르난데스에게 만루포를 맞는 등 6.1이닝 7피안타(1피홈런) 5사사구 7실점으로 6연패 기간 2패째를 기록했다.  
 '총체적 난국'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악몽 같은 1주일이었다.  
 스트라이크 못 던지는 투수, 전력 극대화 실패한 벤치, 중요한 순간에 못보는 심판 등이 어우

러진 졸전의 연속이었다.  
 악몽의 시작점은 지난 16일 사직에서의 5회말이었다.  
 KIA는 이날 0-2로 뒤진 3회말 대거 7점을 뽑아 내면서 문학 3연전의 기세를 잇는 것 같았다.  
 하지만 5회말 선발 윌랜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1사에서 3연속 안타에 이어 폭투까지 기록한 윌랜드는 7-6까지 쫓긴 2사 2루에서 전준우를 상대했다.  
 그리고 볼카운트 2볼 2스트라이크에서 결정적인 판정이 나왔다. 전준우의 방망이가 윌랜드의 변화구에 끌려 나왔다 멈춰지만 스윙 판정은 나오지 않았다. 이후 흐름을 끊는 데 실패한 KIA는 4점을 더 내준 뒤에야 5회를 마감할 수 있고 경기는 9-10 패배였다.

이날 3루심이 두 팔을 벌려 파울임을 선언했다가 페어로 동작으로 바꾸는 헤프닝도 있었다.  
 그리고 주말 시리즈까지 오락가락한 스트라이크존이 KIA를 괴롭혔고 결국 21일 이명기기 첫 타석에서 낮은 코스에 삼진을 당한 뒤 항의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2회말 공격에서는 KIA가 연달아 비idou 감독을 신성했고, 한 차례 판정이 번복이 되면서 어렵게 득점을 인정받기도 했다.  
 0-2로 뒤진 2사 1-3루에서 린드블럼의 폭투가 나왔고, 2루로 향하던 1루 주자 한승택을 잡기 위해 포수가 송구를 했다. 그 사이 3루주자 김선빈이 홈을 파고 들었지만 아웃 판정이 나왔다.  
 비idou 감독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김선빈의 손이 베이스에 닿는 순간 태그가 이뤄지지 않은 장면이 바로 노출되면서 판정이 번복됐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 KIA 투수진의 붕괴가 악몽 같은 연패의 충격을 키웠다.  
 KIA는 6경기 기록된 최근 6경기에서 55실점을 했다. 6경기 평균자책점이 9.17에 이른다. 선발진의 평균자책점은 9.09.

많이 맞고 많이 내줬다. 75개의 피안타(6피홈런)로 55득점을 허용했다.  
 피안타보다 아쉬운 건 사사구다. 최근 6경기에서 기록된 KIA 투수진의 사사구는 무려 42개다. 경기당 평균 8개의 사사구를 남발한 셈이다.  
 최형우의 만루포 포함 9회초 8득점을 하고도 9-10 역전패를 당했던 지난 18일 경기의 시작점에도 8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이민우의 불넷이 있다.  
 불넷으로 자초한 위기를 넘지 못하는 모양새가 계속되면서 불펜진은 과부하에 걸렸고, 야수들은 집중력을 잃었다.  
 운용의 묘를 관리하지 못한 벤치의 책임도 크다. 특히 깔끄잡지 못한 마운드 운영이 KIA의 발목을 잡았다.  
 KIA 불펜은 신예 선수들의 활약 속에 시즌 초반 예상외의 견고함을 보여줬었다. 하지만 주축 타자들의 침묵 속에 어렵게 불펜이 돌아갔고, 새로운 필승조 하준영과 마무리로 승격된 김윤동에게 많은 부담이 지워졌다.  
 결국 지난 18일 김윤동이 마운드에서 쓰러졌

다.  
 9-5로 앞선 9회말 무사 1-3루에서 등판한 김윤동은 연속 불넷 뒤 한동희의 투수 앞 땅볼로 원아웃을 잡았지만, 나경민과의 승부에서 20구째 공을 던진 뒤 어깨 부위를 감싸고 주저앉았다.  
 그리고 19일 김윤동은 정밀 검진 결과 오른쪽 대흉근 부분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재활과 복귀 일정은 통증이 가라앉은 뒤 재검진을 받은 뒤 확인할 수 있다.  
 김윤동은 그동안 팀의 필승조로 무거운 역할을 하면서 어깨 상태가 좋지 않았던 만큼 캠프에서부터 '특별 관리 대상'으로 천천히 시즌 준비를 했었다. 하지만 투-타의 잇박자 속 부담스러운 등판이 이어지면서 일찍 속도를 냈고, 탈이 나고 말았다.  
 불펜의 중심 김윤동까지 빠지면서 경험이 부족한 불펜이 요동치고 있다.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손발이 맞지 않았던 KIA의 6경기는 큰 실망감과 함께 많은 숙제를 남겼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KIA가 '위기 탈출'을 위한 묘수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2실점 9K... 건강 우려 씩었다

류현진 복귀전 5.2이닝 호투에도 타선 지원 못받아 패전

부상을 이겨내고 돌아온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복귀전에서 크리스티안 엘리치에게 연타석 솔로포 일격을 맞았다.  
 류현진은 21일 열린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방문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5.2이닝 동안 삼진 9개를 슈아내며 2실점으로 호투했다.  
 류현진은 밀워키 간판타자 엘리치에게 3회와 6회 연타석으로 솔로 홈런을 허용해 실점했다.  
 안타 6개를 맞았고, 불넷은 1개를 내줬다.  
 류현진은 0-2로 뒤진 6회 2사 1-2루에서 강판했고, 구원 투수 딜런 플로로가 추가 점수를 주지 않아 자책점도 2점에 머물렀다.  
 류현진의 속구 최고 구속은 시속 148km를 찍었다. 올 시즌 시즌 한 경기 최다 탈삼진도 기록했지만 팀이 0-5로 지면서 시즌 첫 패를 기록했다.  
 지난 9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에서 왼쪽 내전근 통증 탓에 2회를 채우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간 류현진은 재활 등판을 거치지 않고 12일 만에 다시 마운드에 올라 안정적인 투구를 뽑내 부상 우려를 말끔히 씻었다.  
 2013년 빅리그를 밝은 류현진은 이날 박찬호(287경기), 서재용(102경기)에 이어 역대 코리안 빅리거로는 세 번째로 통산 100번째 선발 등판을 치렀다.  
 류현진은 1회 토타자 로렌조 케인을 헛스윙 삼진으로 낚았고, 홈런 11방을 터뜨릴 정도로 뜨거운 2번 크리스티안 엘리치도 중견수 뜬공으로 잡았다.  
 류현진은 2회 빗맞은 안타 2개를 내줘 2사 1-2루



에 몰렸지만, 올란도 아르시아를 2루수 직선타로 잡고 한숨을 돌렸다.  
 류현진은 3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엘리치에게 좌중간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허용했다.  
 삼진 1개를 결들이며 4회를 삼자범퇴로 막은 류현진은 5회 선두 매니 피나에게 좌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맞고 위기에 몰렸다. 이후 세 타자와의 대결이 이날 투구의 백미였다.  
 류현진은 아르시아를 빠른 볼 3개로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대타 벤 개말마저 헛스윙 삼진으로 슈아냈다. 이어 케인 역시 헛스윙 삼진으로 낚아 불을 껐다. 류현진은 불넷과 우전 안타를 내준 뒤 공을 플로로에게 넘겼다.  
 /연합뉴스

## 지은희 아쉬운 '뒷심 부족'

LPGA 롯데 챔피언십 준우승...최혜진 5위·고진영 공동 17위

지은희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에서 준우승했다.  
 지은희는 21일 미국 하와이주 오아후섬 카푸레이의 코올리나 골프클럽(파72-6397야드)에서 열린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2개와 보기 3개를 묶어 1오버파 73타를 쳤다.  
 최종합계 12언더파 276타를 친 지은희는 우승자 브룩 헨더슨(캐나다·16언더파 272타)에게 4타 뒤진 2위에 올랐다.  
 올해 개막전인 1월 다이아몬드 리조트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정상을 차지한 지은희는 이번 대회 2라운드까지 단독 선두를 달리며 시즌 2승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3~4라운드에서 타수를 잃고 시즌 네 번째 톱10 진입에 만족해야 했다.  
 지은희는 3번(파4), 4번(파3) 홀 연속 보기를 적어내며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이어진 5번(파5), 6번(파4) 홀에서 연속 버디로 반등하며 헨더슨을 뒤쫓았다.  
 이후 파 세이브를 이어가던 지은희는 선두 헨더슨이 11번 홀(파4) 버디를 잡아낸 바람에 세 타 차로 밀렸다.  
 /연합뉴스

헨더슨의 11번 홀 티샷은 그린 주변 벙커 방향으로 향했으나 벙커 옆에 놓인 고무레를 맞고 그린 앞 좋은 위치에 떨어지는 행운이 따랐다.  
 헨더슨은 두 번째 샷을 홀 가까이 불인 뒤 가볍게 버디를 낚아 우승을 향해 순항했다.  
 13번 홀(파5)에서 나온 보기가 지은희에게 뼈아팠다.  
 두 번째 샷을 그린 근처까지 보냈으나 세 번째 샷이 그린 경사를 타고 많이 내려왔고, 버디 퍼트도 흘러내렸다. 결국 이 홀에서 한 타를 잃은 지은희는 헨더슨과 4타 차로 벌어졌다.  
 헨더슨은 타이틀 방어에 성공, 지난해 8월 CP 여자오픈 이후 LPGA 투어 통산 8승을 올렸다.  
 호주교포 이민지와 에리아 쭈타누간(태국)이 공동 3위(11언더파 277타)에 자리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최혜진은 공동 5위(10언더파 278타)로 선전했고, 유소연이 공동 9위(8언더파 280타)에 올랐다.  
 세계랭킹 1위 등극 이후 첫 대회에 나선 고진영은 마지막 날 두 타를 잃고 공동 17위(6언더파 282타)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스파이더 우먼?** 21일 광주 서구 상무인공암벽장에서 열린 제30회 광주시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에서 여자 주니어부에 참가한 정예진(용두중 3)이 인공암벽을 거침없이 오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